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사람은 서서히 변한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35-48절 (Tag:)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 너희도 이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12:35-48)

사람은 변하는데 서서히 변한다. 서서히 변하니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너무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제 좀 사람 되었구나 싶으면 죽을때가 된다.(오죽했으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을까?)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을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변하기로 작심하고 열심히 살면 빠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도 변하는게 사람이다.

(만약 그가 어린이라면 어릴수록 빨리 변한다. 물론 그만큼 부모가 치밀하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겠지만.)

나이가 들었다면 보편적으로 변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큰 일을 겪고 나면 나이가 들었어도 쉽게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일을 겪으려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손해도 많고, 후유증도 크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큰 일을 겪기 전에 일찌감치 변하는 것이리라.

꼬리가 길면 밟히게 마련이다. 나쁜 습관이 오래면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나는 운이 좋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것과 같다.

서서히 일지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선하게 변하든, 악하게 변하든 결국은 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하고 바른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해야 하리라. 그래야 악해지지 않는다. 마귀할멈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 우리의 갈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여행을 떠나야 하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만 하지만, 삶의 순간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성도의 자기 점검.

이것이 깨어 있는 성도의 모습.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 일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 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청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서서히 변해간다. 더 거룩해져 간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더 경건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더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더 커져야 한다. 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한다. 더 분명히 진리에 가까워져야 한다. 우리의 산업도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져가야 한다. 거래처는 더 많아져야 하며, 실력도 더 좋아져야 하고, 신뢰와 신용도 더 커져야 한다. 우리의 선행도 더 많아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에 빠지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진실한 청지기는 세상이 끝장나기를 기다리는데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물론 우리가 같은 시간을 기다리지만, 한쪽에서는 멸망하게 될터이니 불꽃처럼 장렬하게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다.(세속적인 사람들이나, 종말만 기다리면서 마치 남겨진 장작 태우는 심정으로 삶을 불태우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보람있고, 더 속이 가득하고 알찬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창고를 보실 것이다. 모두 탕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백배나 받아서 열매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사람에게 종말은 그야말로 가장 살고 싶었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시작 되면서 결혼식을 올린다.

해가 지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출발하고,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서 결혼식이 시작되며 잔치가 벌어진다. 이때 악한 자들로부터 신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착하는 즉시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다. 또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랑이 들어오고 난 다음 신부의 집 문을 곧 닫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신랑의 집이 멀 경우 밤이 늦도록 신랑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 혹 이경이나 삼경까지 갈 수도 있을것이라는 뜻이다. 9시~새벽 1시까지.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뜻이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알차

저야 한다. 그렇게 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코 허랑방탕하거나 세월을 낭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거룩해지는 성도의 단계:(변하는 단계)
주일성수와 헌신(성직자) -의존적 단계.
경건생활 (성경읽기, 기도, 찬양) -자급적 단계. 이전 단계를 포함함.
가정생활(자녀가 있는 가정은 특히) -고아원 사역과 연결지어 생각하라. -생산적 단계
일터사역(일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생산적 또는 리더 단계
세계선교에 대한 헌신 -지도자적 단계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순간순간 깨어 있으며 자신을 점검하는 성도는 복이 있고, 상이 있다.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보다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는 철저히 준비해서 갈수록 부요해지는 성도다. 그는 기다릴수록 열매가 많아진다.

39 너희도 이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아무도 그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말은 그 월과 년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문학적 유추를 가능케 하는 말씀이지, 그 월과 년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 해석. 말장난에 불과하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라; 무엇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맞을 준비는 내 삶을 불태우면서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 받을 준비.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많이 거두어 풍성하라는 뜻.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은 아니고, 청지기와 종들에게. 주님께는 청지기도 종, 청지기에게는 집안에 모든 사람이 종. 모두는 주님의 종. 그런데 청지기와 다른 종들을 구분하셨음.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심. 본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주시고 더 많은 복도 주심.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우리로다

-여기서 좋은 청지기.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한 자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심.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앞의 좋은 청지기, 뒤의 좋은 성도들을 가리킴.

-청지기가 섬기지 아니하고 군림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심.

46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악한 청지기에게 임하는 심판.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악한 청지기는 같은 죄를 범하고도 더 많은 벌을 받음.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성도는 같은 죄를 범해도 덜 혼이 난다.

-덜 혼나기 위해서라면 진리를 덜 깨닫고 덜 충성하라? x

-그러나 영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더 깨닫고 더 충성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왜 변해야 하는가? 더 큰 영광을 얻으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10:23)

44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24:44)

40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눅12:40)

<찬양예배>

제목 : 그 후에야 밝히 보인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
(Tag:)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 7:1-6)

-비판, 비난, 비아냥 등은 마귀의 것.

-성도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분량대로 판단해야 함.

-자기의 권한 밖의 판단을 하지 말 것.

1. 일단 자신을 판단할 것. (자신도 비판은 하지 말 것)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를 판단할 것. 다른 사람의 형편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 것.(어제 수치과 누수. 관리소장의 판단은 다른 사람의 형편으로만 판단해서 자기의 일을 놓침.)

2. 자기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신 판단해 주어야 함.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자이지, 아이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선은 아님. 아이의 판단과 부모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부모는 충분히 아이를 이해시키면 좋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해시킬수는 없더라도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는 말 것.

아이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더 우선적임.)

3.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보살피는 사람의 보살핌에 대해서 자신의 호불호와 유익과 감정만 표현하고 전달할 것. 자기에게는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은 싫다’ 만 표현하면 됨. 그리고 판단은 보살피는 자에게 맡김. 내 판단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음.

4. 위탁하는 자는 보살피는 자에게 일임하되, 일정기간동안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와 과정을 판단할 책임이 있음. 그리고 나서 계속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함.

5.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토의함.

이처럼 판단과 비판은 엄연히 다름.

심판은 하나님의 것. 즉 벌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임.

-비판이나 비난을 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 들보(나무토막)를 빼어라. 진리가 필요함. 진실이란 진리에 따라 왜곡됨. 편향되어 해석됨.

-사건도 진리가 아님. 사건이란 6하원칙에 따른 조사를 말함. 사건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전후 사정은 사건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침.

-들보란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뜻함. 거짓에 가리면 반드시 해석이 틀림.

-가장 큰 들보는 율법주의. 자기는 진짜 자기가 틀린지 모름.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현재의 세상은 마귀의 자녀들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음. 이미 우리 안에 늑대가 들어 있음.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성도는 거룩한 것과 값진 것을 지켜야 함.

-거룩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마귀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뜻함. (영분별-영분별은 귀신을 알아채는 수준이 아님.)

-값진 것을 지킨다는 것은 가치를 지키는 것을 뜻함.

-하나님의 것은 마귀에게 주면 앗뵈뵈. 그는 노리겠지만.

(영광, 영혼, 영원, 주권, 교회, 가정, 자녀)

-거룩한 것이란 단순히 죄를 범하는 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 도덕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과 심지어 계명과도 다른 차원임. -즉 마귀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도덕적이며 율법적이며 계명을 잘 지킬수는 있기 때문임.(가식적으로라도)

-거룩이란 남녀의 구별과 같음. 즉, 구별하는 능력임.

-거룩하지만 죄를 범할수도 있다. 왜냐면 그것이 죄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꼴이 되어 거룩이 아니다. (어떤 것(또는 사람)은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 만큼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중요함. 심지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 거룩.)

-거룩한 사람이 그것이 죄인줄 알면서도 죄를 범할수도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고, 회개할 것이다. 회개를 반복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를 이겼을 경우이고 그가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는 죄를 벗어날 것이다. (만약 창녀라면, 또는 마약 중독이든지)

아니면 그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경우다.

-거룩한 사람은 죄를 알면서도 일부러, 가책도 없이, 회개함도 없이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조만간 벗어난다. 그러나 구원파와 같은 자들은 거룩함을 개에게 주는 자로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